

기고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티센크루프와 독일의 주주행동주의

티센크루프(Thyssen Krupp)는 독일의 엘리베이터 제조회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철강과 엔지니어링이 모태인 기업이다.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1999년에 티센과 크루프가 합병해서 탄생했다. 이 합병은 1997년에 크루프 측이 규모가 더 큰 티센을 적대적으로 인수하려고 하다가 은행권과 노동계의 개입으로 저지된 사건에서 벌단이 되었다.

티센은 1891년에 설립됐고 크루프는 역사가 더 오래돼서 1811년에 설립되었다. 2018년 매출액이 508억 달러로 독일 15대, 글로벌 215위 기업이다. 종업원은 약 16만 명이다.

티센, 크루프 두 회사 다 사업 영역 때문에 보불전쟁 아래로 전시에 독일군이 사용하는 장비와 물자를 대량 생산했다. 크루프는 세계 최초로 강철 포신의 대포를 제작한 회사이기도 하다. 히틀러는 한 연설에서 독일의 청년들이 “크루프의 강철처럼 견고해야 한다”고 한 적도 있다.

티센은 창업자의 장남이 나치 전범으로 처벌받아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고 차남은 해당초에 독

일을 떠나 형가리로 가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2세대에서 기업이 단절됐던 회사다. 2차 대전 후 연합군 점령당국에 의해 해체된 후 재설립됐다.

크루프는 창업자의 5세까지 경영이 승계됐다가 1967년에 후사가 없었던 5세의 티케 후 그 이름(Alfried Krupp)을 딴 공익재단에 기증 보유 지분 전량이 귀속되었다. 크루프 패밀리에는 형제간 경영권 승계는 없다는 규칙이 있었다. 이 재단은 현재 티센크루프의 20.9% 최대주주다.

티센크루프의 2대 주주는 스웨덴의 투자회사 세비앙(Cevian) 캐피털이다. 13.7% 주주다. 소프트하고 건설적인 행동주의 펀드로 알려져 있다. 세비앙은 티센크루프가 지나치게 사업이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업계 경쟁회사들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고 회사의 구조조편을 요구해왔다.

티센크루프는 철강 외에도 잠수함, 화학플랜트, 자동차 부품, 조선 등의 사업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대규모 투자계획이 공개 된 TKMS는 2005년에

HDW를 인수한 회사인데 214급 잠수함 건조로 잘 알려진 HDW는 1838년에 설립되었고 양차 대전 때 독일 해군의 고성능 유보트를 생산했던(2차 대전 때만 64척) 유서 깊은 조선사다.

티센크루프는 인도의 타타스틸과 유럽지역 사업을 통합하기로 하고 암스테르담에 50대 50의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새 회사는 유럽 2위의 철강회사가 될 계획이었다. 양사간의 공식 계약은 체결되었다. 경영진은 이 딜을 통해 주주 가치가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회사의 경영진에 문제가 있다고 본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Elliott)이 등장한 것은 2018년 5월이다. 엘리엇은 타타와의 합작이 지나치게 티타 측에 유리하다고 비판하면서 다른 방식의 구조조편을 요구했다. 회사의 고참 주주들 조차 행동주의 주주들을 지지하면서 경영진을 비판하는 지경이 되었다.

작년 7월에 CEO와 감사위원 회 의장 레너가 동반 사퇴했다. 레너는 물러가면서 자신을 암박한 엘리엇을 ‘사이코 테러리스

트’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회사 경영진이 엘리엇에 시달린 나머지 심리치료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티센크루프 경영진은 회사를 철강과 소재 부문, 엘리베이터를 포함하는 산업재 부문 두 사업 부문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한다. 두 사업 부문이 각각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전반적인 수익성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 때문에 회사의 주가가 30% 가까이 하락했다. 상당 기간 침묵하던 엘리엇도 분할계획에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분할계획은 취소됐다.

CEO가 메르츠로 교체되면서 엘리베이터 부문 매각 계획이 공표되었다. 엘리베이터 부문은 티센크루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다. 뉴욕의 월 월드트레이드센터도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를 쓴다. 경쟁사 판란드의 코네와 몇몇 사모펀드가 관심을 보이고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기업 가치는 약 165억 달러에 상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분시장의 발달이 낙후되었던 독일도 이제 주주행동주의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글로벌 펀드들이 독일의 제도와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를 서서히 높여가면서 공격 대상도 독일 30대 기업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고 복합기업그룹과 ESG 측면에서 저조한 회사가 대상이 되고 있다. 티센크루프 사례는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독일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주주행동주의 사례로 기록된다.

社說

온정 메마르지 않은 광주·전남

경제가 어렵다면 딜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 온정의 불씨는 여전한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기업 총수에서부터 평범한 시민들까지 기부에 주저하지 않으면서 주위를 훈훈하게 한다. 이렇듯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살맛 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조금만 눈여겨보면 어려운 이웃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다. 물론 올해 우리 정부 예산 총액 512조원 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가 ‘보건·복지·교육’ 분야로 무려 180조원에 이른다. 더욱이 복지부의 예산 증가율은 다른 부처보다도 훨씬 높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과거 어느 때보다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은 맞다. 그렇더라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도움이 꼭 필요한데도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많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다.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생활정보전화

▲ 아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인평 일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회장·발행인 김평호

등록번호 광주기 00021 (일간)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호남신문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62길 16-1
대표전화 (062) 229-6000	Tel (02) 2238-0003
광고국 (062) 224-5800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기자제보 (062) 971-7400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 프린테크
팩스 (062) 222-554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